

“괴짜 홍화 박사”

이사람

“제주 부러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아파트 화분, 두부상자 등에 누구나 홍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제주부러지 않는 마음’이란 수량성을 탐내지 않고 다만 자연이 주는대로 거둔다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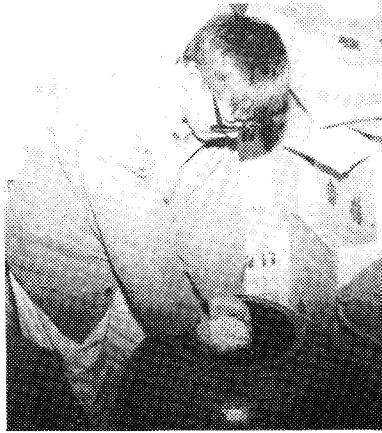
어찌보면 황당하고 엉뚱하게만 들리는 홍화재배론을 피력하는 노용신 씨. 그는 홍화에찬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토종 홍화의 효능에 빠져서 홍화만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이다.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나름대로의 재배법을 터득한 그가 본격적으로 홍화재배를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부터. 그의 경험에 비추어 홍화는 결코 재배하는데 답이 없고 직접 키워 봐야 아는 작물이다.

“겉모양이 고르고 좋아도 약효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모양은 형편 없지만 놀랄만큼 빠른 약효를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화재배법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관리방법만을 조언해줄 뿐이다

모래섞인 황토흙이 좋고 충분히 잘 발효된 천연퇴비를 사용해야 하며 진딧물이 발생할 경우 어성초 끓인 물을 부어주면 효과적이라는 것 등등.

노용신 씨 (45)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북동)



◇홍화씨를 들여보이고 있는 노용신 씨.

그러나 그가 들려주는 홍화재배론은 상당히 독특하고 철학적인데가 있다.

“홍화가 어느정도 자란 이후에는 잡초도 함께 자라도록 놔둡니다. 홍

잡초 죽이고 홍화만 키운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자연의 마음은...

화만 키우고 다른 모든것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결코 자연의 마음은 아니지요”

자연은 상생의 원리에 입각,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것이 같이 살아야 홍화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양질의 홍화씨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또, 무엇보다 홍화의 약성은 키우는 사람의 정성에서 우러나온다고 그는 믿고 있다.

그래서인지 홍화재배에 쏟는 그의 정성은 각별하다 못해 고지식하다. 밭을 일굴때도 땅의 기를 다치지 않기 위해 트랙터나 경운기 대신 소로 쟁기질을 하는가 하면 파종할때도 손으로 직접 눌러 심는다. 씨가 여물 무렵이면 새나 들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익은 것 부터 따서 말리고 잘 말린 후에는 꼭 옹기에 보관한다.

“홍화가 지금처럼 몇사람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가격상승 요인이 될 뿐이지만 그렇다고 대량생산이 되면 자칫, 정성으로 키워야 할 홍화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기계화나 과학영농이니 하는 것과는 애초에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그의 방식이 오래도록 가슴에 와 남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문정희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오미자 열매의 크기 및 숙기가 달라 품질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신현석 <경기 양평군 대흥1리>

답 오미자는 자동동주의 이가화(二家花)로 5월에 새가지 밑부분에 꽃이 피는데 대부분 타화수정을 하기 때문에 실생번식을 하게 되면 잡종이 되어 오미자열매 달리는 형태에 있어서 과방(果房)의 크기가 다르고, 숙기 및 열매색깔도 다르며, 열매의 크기도 달라서 각양각색의 모양이 달리 나타나게 되어 수확한 열매를 건조시켜 놓으면 빛깔과 크기가 고르지 않아 품질이 떨어집니다.

우선 한해 재배를 하면서 열매의 색깔, 숙기, 과방의 크기, 열매의 굵

의 고정을 유지하기 위해 분주번식을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주지(主枝)를 절단하고 성토(聖土)하여 분열을 조장시켜 많은 분주묘를 얻도록 하는 것과 휴면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봄에 줄기를 땅에 파상적으로 여러번 휘어놓는 방법으로 하여 분주묘를 많이 만듭니다.

문 일천궁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여름철에 잎이 마르고 고사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배석태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북동>

일천궁 잎마름현상 방지 위해서는...

기를 자세히 관찰한 후 육안으로 보아 가장 수확이 많아 보이고 색깔이 좋은 포기를 3~5포기 선택해 놓고 이 포기를 분주번식한 후 격리재배하여 얻은 종자를 실생번식 하면 많은 종묘도 생산할 수 있고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선택된 포기

답 일천궁은 비교적 서늘하고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하므로 여름철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잎의 가장자리 부터 마르기 시작하여 심하면 말라죽는 하고현상(夏故現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온이나 가뭄, 응애 및 잎마름병등의 병충해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재배적지가 아

닌 곳에서는 고온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잎마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7~8월의 최고기온이 30C이상 되는 기간이 길지 않는 곳이나 서늘하고 습기가 있는 300m이상 산간 고냉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온과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수의 효과가 크며, 심은 줄사이에 짚이나 잡초를 깔아 수분증산을 방지하고 지온을 낮추어주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7~8월에 2개월정도 차광을 해주면 가뭄을 방지하고 잎마름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차광하지 않은것에 비하여 18~19%정도 수량이 증수

됩니다. 또한 고온 건조기에는 응애가 많으므로 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일천궁은 지하부의 뿌리줄기를 이용하는 식물로서 습기를 좋아하는 약초이지만 장마철에 수분이 많으면 뿌리가 썩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김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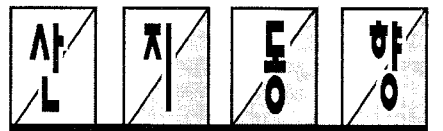
거래부진, 토천궁 보합세

하수오 경북 영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하수오는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나는 품목이다. 중품으로는 근당 7천5백~8천원선에 최상품은 1만2천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다.

신약 계속되고 있는 불황속에서도 거래 여전히 한산하다. 시세도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난달과 비슷한 근당 4~4천5백원 선으로 보합세 이루고 있다.

천궁 일천궁은 근당 4천5백원 선으로 지난달 보다 약간 오름세. 토천궁은 근당 6천5백원 선으로 한번 떨어진 시세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구기자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기자 도매시세는 근당 7천~7천5백원 선. 상품은 8천~8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강활 지난해 햇것 출하시기 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강활값이 여전히 3천5백~3천7백원선으로 밀바닥 거래되고 있다. 경기 부진한 가운데 당분간 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산수유 전남 구례가 산지인 산수유는 지난해 수해영향으로 물량이 귀해 산지(구례)에서 8천~8천5백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산은 6천~6천5백원 선으로 구례산과 다소의 가격차.

맥문동 맥문동 도매시세도 지난달과 비슷한 근당 5천원선(막막), 6천2백~6천3백원선(거심)으로 보합세. 상품은 6천2백원(막막), 8천원선(거심)에 산지거래되고 있다.

지약 햇것이 출하되는 울 가을까지는 보합세를 이룰 전망이다 작약 시세는 현재 근당 2천~2천5백원 선으로 바닥세지만 가을쯤에는 다소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

반하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하 도매시세는 근당 1만4천원 선으로 보합세다. 약간의 품귀현상까지 빛고 있는 반하는 지난해 수입산의 영향으로 8천5백~9천원선 까지 폭락, 재배면적도 10분의 1로 감소했다.

백지 3천원 선에 거래되던 백지도 도매시세는 현재 근당 2천8백원 선으로 다소 내림세다.

“작약 가을쯤엔 상승세 탈듯” 산지인 분석